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민심 정권교체 '일등공신'

문재인 승리 요인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의 승리는 대선 재수에 나선 준비된 후보인 데다 시대정신에 전착하는 정치인이라는 자체적 동력도 있지만 촛불 민심 등 시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과 사상 초유의 5개 원내 정당 후보가 완주한 다자구도, 제1당 후보로서의 탄탄한 고경 지지를 등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이끌어 낸 배경으로 꼽힌다.

▷**촛불 민심**=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 민심의 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 낸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한 세상을 요구하며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 민심은 제1당이자 야권의 대표 주자인 문재인 후보로 향했고 이는 대선 정국 초반부터 대세론으로 이어졌다.

촛불 민심은 보수 진영을 사실상 붕괴시켰으며 보수 정당의 국민연립보다는 제1당인 민주당을 통한 정권 교체로 모아졌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내세우며 촛불 민심의 지지를 결집시켜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다자구도**=사상 초유의 5개 원내 정당 후보들이 완주한 다자구도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후보단일화를 하거나 개혁을 토대로 비문 연대가 현실화, 1대1 구도가 형성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30% 후반에서 40% 초반의 박스권 지지율에 갇히면서 확실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30% 중반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문 후보는 다자구도에서 확실한 1위를 고수하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대선 경험**=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다시 도전에 나서 경험 측면에서 타 후보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달변은 아니지만 TV 토론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정책 및 공약에서도 타 후보에 비해 많이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리 유세나 지역 순회 유세에서도 대선 경험에 없는 다른 후보에 비해 여유 있고 메시지 전달에도 강점을 보였다. 적극적인 인재 영입과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으로 준비된

사상 초유의 다자구도

대선 경험 '준비된 대통령' 대세론으로 安風 잠재위

후보의 이미지도 강화했다.

지난 대선 당과 선대위가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 효율적으로 운용했다. 여기에 분당도 불사하며 대선을 앞두고 당권을 획득, 당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도 정치적 승부수였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총선 승리는 문재인 후보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분석이다. ▷**장미 대선**=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급박하게 진행된 대선 일정도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탄핵이 늦어지면서 가을이나 당초 일정대로 연말에 대선이 치러졌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보수 진영이 전열을 재정비했을 것이고 국민의당도 보다 차분하게 대선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중반에 문재인 후보 지지율에 육박했으나 전략 부재 등 준비 부족으로 실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간이 충분했다면 민주당의 고질적 내분이 불거지고 비문 후보 단일화 등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급박하게 치러지면서 각종 변수가 생길 환경이 충분치 않았고 '문재인 대세론'이 그대로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제1당 주자**=원래 제1당의 주자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수차례 대선을 치러본 경험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들로 구성된 선대위의 준비된 역량은 타 후보 진영을 압도했다는 평가다. 각종 지원 유세나 홍보, SNS 대응 등에서 한 발짝 앞서갔으며 제1당으로서 전국적인 당원 조직은 문재인 대세론 유지에 토대가 됐다.

이와함께 '광주 포럼' 등 전국적인 자발적 지지 조직의 활동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제1당 후보가 주는 안정감도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 교체를 이끈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승리 환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9일 밤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방문,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대한민국 문 여는 날 개혁·통합 두 과제 이루겠다”

문재인 당선 소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선거기간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 여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들 함께해 주셨듯, 앞으로 제 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민주당 정부의 계승을 위해,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가지 과제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 관계자들을 향해 “정말 고맙다. 수고 많이 하셨다. 예측했던대로 출구조사에서 큰 격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와함께 “첫째는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간절함, 둘째 그 국민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미에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이 선대위를 아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뛰주셨던 실무자 여러분들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빈틈없이 자기 역할을 다해줬다”며 “이렇게 푹푹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른 건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변화의 열망 부응 많이 부족 국민의 선택 겸허하게 수용”

안철수 결과 승복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9일 19대 대선 결과와 관련,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해진 밤 10시35분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방문,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대선패배를 사실상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지혜로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외국 출국 계획을 묻자 고개를 숙이

며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국민의당 당사에서 들러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경호해 온 전담 경호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선거운동 막바지 도보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는 ‘뚜벅이 유세’로 경호팀이 매우 긴장했던 상황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안 후보는 “아마 다들 처음 경험하는 경호 방식이었을 텐데 정말 수고하셨다. 아 무 사고 없이 마치게 된 건 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라며 4박 5일 ‘뚜벅이 유세’를 묵묵히 뒷받침해준 경호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호원들은 안 후보가 배낭 하나만 메고 전국을 누빌 때 사복을 입은 채로 원거리에서 경호해야 했다. 시민들 눈에 띄지 않으려다 숨겨진 경호망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안 후보는 경호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촬영도 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www.joytour.kr

무안출발 일본여행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5월 21일, 5월 28일 단 2회!! 선착순 30명!!
4일 299,000원~

- 공통포함사항:편도항공, 편도선박, 현지차량, 일본현지식사
- 불포함사항:기사, 가이드경비(₩30,000/인), 국내수송(₩35,000/인)

美親특가 항공권 (공항세 및 유류세 포함)
매주 일요일 무안 출발 - 기타큐슈 편도 39,8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JOY TOUR CO.,LTD

NAVER 조이투어 검색
TEL: 062-234-3222 FAX: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금환

여행경비1인 기준, 여행저보험 가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항공료 포함 / 교통편:항공 및 전철버스 / 상의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항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